

가까워진 북·중...우호관계 '절정'

김정은, 中 쑹타오 국빈대접 리설주·김여정과 3번 만남 전략적 협력 깊은 대화 나눠 연쇄 정상회담 최대의익 겨냥



김정은(앞줄 가운데)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4일 방북 중인 중국 예술단 단장인 쑹타오(宋濤·오른쪽 두번째)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남북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 예술단을 인솔하고 방북한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연쇄 접촉하며 사실상 국빈급으로 대접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쑹타오 부장이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로 방북했을 때 면담을 받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이 불발됐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를 두고 내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 회담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립관계인 중국과의 관계 개화를 통해 최대 이익을 얻어내려는 '지렛대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7일 쑹타오 부장을 만나 북중간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해 깊은 의견을 나눴다. 앞서 김 위원

장은 지난 13일 평양에 도착한 쑹 부장과 14일 점견과 연회를 했으며 16일에는 중국 예술단 공연 관람을 함께했다. 북한 특성상 최고 지도자가 국가수반이 아닌 외국 인사와 세 차례나 만났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최대의 성의 표시를 한 셈이다.

더구나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와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까지 나서 쑹

타오 일행 행사에 참석하는 등 '로열패밀리'가 총동원됐다. 베이징 소식통은 "쑹타오 부장의 이번 방북에 북한은 사실상 국빈 대접을 한 셈"이라면서 "이는 그만큼 북한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중대한 협상을 앞두고 중국이라는 지렛대와 보호막을 중요한 카드로 갖고 가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으로서 내주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비핵화의 대가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중국 또한 비핵화 논의가 남북, 북미가 4차 체제가 아닌 자국이 주도하는 6자 회담으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 대북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있다.

지난달 전격 방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 주석이 파격적인 환대를 한 데 이어 쑹타오 부장이 직접 예술단까지 이끌고 김일성 생일(태양절) 축하 행사에 방북하는 등 북한에 연이여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미 정상회담 후 시진핑 주석의 '6월 방북설'까지 나오고 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열리는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쑹 부장을 단장으로 방북했던 중국 예술단은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간) 국무원 전용기로 귀국했다.

5박 6일간 평양에 머물며 발레 등 공연을 펼쳤던 중국 예술단의 귀국길에는 최근 가까워진 북·중 관계를 반영하듯 지자체 중중 북한대사가 공항에서 직접 배웅했다. /연합뉴스

'나프타 탈퇴 으름장' 미국, 멕시코·캐나다와 재협상 논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고위 관리들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다.

나프타 재협상이 향후 수주 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의 한 관리가 이같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몇몇 정점이 남아있는 가운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멕시코의 대통령선거가 열리는

7월초 이전에 재협상과 관련한 합의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 일테폰소 과 하르도 멕시코 경제부장관 등 3개국 협상 당사자는 지난 6일 마지막 회동을 했다.

이번 워싱턴 만남은 6일 회동의 연속 선상이지만, 자동차 무역과 분해결 시스템 등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

식통이 전망했다.

나프타 재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유리한 나프타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주장하자 작년 8월부터 시작됐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4일 페루에서 열린 미주정상회의에서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회동한 뒤 나프타 재협상이 '수주 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고, 과하르도 장관도 내달 초에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日 소프트뱅크 세금 37억엔 탈루 적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2012년 4월 부터 2016년 3월까지 4년간에 걸쳐 약 939억엔(약 9330억원)의 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조세당국에 적발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탈루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은 아주 드문 사례다. 신문에 따르면 이런 사실은 국제적 조세회피의 세무조사

에서 밝혀졌다. 탈루는 인수한 외국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보유한 자회사의 이익을 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합산 대상이 된 소득은 약 747억엔이었다. 주식매각 이익 등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수정 금액을 포함해 탈루액은 939억엔에 달했다. /연합뉴스

소프트뱅크그룹은 도쿄국세국의 지적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수정신고했다. 도쿄국세국은 탈루분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포함해 37억엔(약 367억원)을 추징했다.

가산세 금액이 탈루액의 3.9%에 그친 것은 이번 탈루가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과거 소프트뱅크그룹의 적자에 따른 법인세 공제 규정 등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차관 성희롱 논란' 뒷집 아베 정부 여론 더 악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학 스캔들로 위기에 몰린 가운데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차관 성희롱 논란'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전날 후쿠다 준이치 재무성 사무차관의 성희롱 논란에 대해 "피해를 본 여기자가" 신고하고 나오지 않으면 처벌 수 없다"고 말했다.

후쿠다 사무차관은 최근 여자직원들과 저녁 식사 등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중간지 보도를 부인하고 사임을 거부했으며 재무성은 성희롱 발언을 들은 여기자가 있으면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가계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 논란과 모리모토학원의 국유지 매입 의혹 등 2개의 사학 스캔들로 아베 내각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의 추문까지 벌어지자 여론은 더욱 악화하는 상황이다. 노다 세이코 총무상은 재무성의 성희롱 조사방법에 대해 "위화감이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美 여객기 비행중 엔진 폭발 1명 사망

"동체서 구멍 발견" 보도

미국 뉴욕에서 텍사스주 델러스로 향하던 미 사우스웨스트항공 여객기가 운항 도중 엔진이 터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불시착했다고 AP통신과 미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로버트 섬윌트 회장은 "승객 한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미국 항공기 사고로는 2009년 이후 처음 사망자가 발생했다.

승객 중 7명은 경상을 입었다고 필라델피아 소방국이 전했다. 승객 143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운 사우스웨스트항공 1380편 보잉 737 여객기는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께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출발해 델러스 러브필드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승객들은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비행기가 3만 피트(9100m) 상공을 운항하던 도중 왼쪽 날개 엔진이 터지면서 작동을 멈췄다. 엔진 파편이 튀면서 창문이 깨졌고 기내 기압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제니퍼 리어든(43)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비행기가 불시착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민간 상업은행인 웰스파고에서 지역사회관계 담당 부사장으로 일하던 리어든의 사망 소식이 그가 사는 뉴멕시코 앨버커키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사나 마르티네스 뉴멕시코주지사도 나서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부상자 7명은 모두 경상이어서 병원으

미 항공기 비행중 엔진 폭발사고



여객기 왼쪽 날개 엔진 폭발

로 이송되지는 않았다고 필라델피아 소방 당국은 밝혔다. 한편 비행기 동체에서는 구멍이 발견됐다고 NBC10 뉴스는 전했다. 비행기는 관제 유도를 받아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게리 켈리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최고경영자(CEO)는 사고 비행기가 이륙 전 점검을 받았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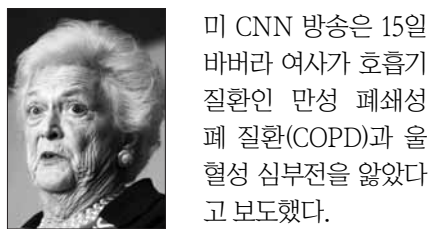
'아버지 부시' 부인 바버라 부시 여사 별세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영부인 중 하나로 꼽히는 바버라 부시 여사가 17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2세.

바버라 여사는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43대 대통령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모친이다. 미 역사상 남편과 아들의 대통령 선서를 모두 지켜본 영부인은 그가 유일하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의 영부인 애비게일 애덤스의 경우 아들 존 퀸시 애덤스가 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세상을 떠났다.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부시 가족 대변인인 짐 맥그래스는 이날 성명을 내 바버라 여사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최근 건강 악화로 가족, 의료진과 상의한 끝에 추가적인 의학 치료를 중단하고 연명 치료인 '임종 돌봄'(comfort care)을 받기로 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미 CNN 방송은 15일 바버라 여사가 호흡기 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 질환(COPD)과 울혈성 심부전을 앓았다고 보도했다.

여러 해 동안 바버라 여사는 크고 작은 질환으로 투병 생활을 했다. 2008년 천공성 궤양으로 수술을 받고 나서 몇 달 만에 심장 수술을 받았으며, 2013년 12월에는 폐렴으로 입원한 적도 있었다.

지난해 1월에는 '아버지 부시'로 불리는 남편과 함께 각각 폐렴과 기관지염 등의 증세로 동시 입원했다.

장남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 "어머니는 굉장한 영부인"이라면서 "어머니는 늘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했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웃게 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57.7평) 건물 : 728.97㎡(220.5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2,317.8평) 건물 : 6,864.61㎡(2076.5평)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종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외에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41.2평) 건물 : 265.58㎡(80.3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939.1평) 건물 : 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베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837.6평) 건물 : 3,793㎡(1147.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100억 병원, 학원, 사육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187.4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833.6평) 건물 : 3,568.32㎡(1079.4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701.4평) 건물 : 3,998.33㎡(1209.4평)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공장) 토지 : 7339.4㎡(2220.2평) 건물 : 4153.34㎡(1256.4평) 감평가 : 6,489,967,980원 최저가 : 4,542,978,000원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근린주택) 토지 : 4200㎡(1270.5평) 건물 : 401.96㎡(121.6평) 감평가 : 473,683,800원 최저가 : 331,579,000원
-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공장) 건물 : 1149.74㎡(347.8평) 감평가 : 675,787,160원 최저가 : 675,787,160원
-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공장용지) 토지 : 15590.5㎡(4716.1평) 감평가 : 1,839,679,000원 최저가 : 1,030,220,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